

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(의 회 사 무 처)



의회운영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I.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1. 제출경위 및 편성요건

-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출일 : 2022. 2. 16.
- 회부일 : 2022. 2. 16.
-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

II. 추가경정예산안 현황

1. 세입예산안

-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

2. 세출예산안

-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이하추경안)은 기정예산 120억 8,724만원 대비 4.48%, 5억 4,131만원이 증액된 126억 2,855만원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2,628,555	12,087,240	541,315	4.48%
사 업 비	4,485,744	4,434,494	51,250	1.16%
행정운영경비	8,142,811	7,652,746	490,065	6.40%

III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광래)

1. 세입예산안 검토

- 해당사항 없음

2. 세출예산안 검토

가. 총괄

-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20억 8,724만원 대비 5억 4,131만원(4.48%)이 증액되어 126억 2,855만원이 편성되었음
-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,
사업비는 기정예산 44억 3,449만원 대비 5,125만원(1.16%)
이 증액되어 44억 8,574만원이 편성되었고,
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6억 5,275만원 대비 4억 9,006만
원(6.40%)이 증액되어 81억 4,281만원이 편성되었음

나. 주요사업별 검토

(1) 신규직원용 사무가구 구입(1,445만원 신규)

- 2022년도 상반기에 신규 채용되어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할 정책지원관(임기제 6급) 8명의 책상, 의자, 서랍, 캐비닛 등 사무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

- 신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가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

[2] 본회의장 발언지원시스템 구축(3,130만원 신규)

- 방청객, 도민들이 의원의 발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의사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, 영상전송장치, 전동발언대 등 본회의장 발언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,1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
- 기존 의원 발언시 원고 시선 집중, 고정식 발언대 사용 등으로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, 낮은 의사 전달 효과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디지털 의사진행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발언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

[3] 기타직 보수(4억 9,006만원 증액)

- 지방자치법 제41조, 부칙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입법·정책 지원, 의정자료 수집, 조사, 연구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(충청북도의회 32명)의 2분의 1 범위인 16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을 둘 수 있으며,

- 정책지원관 도입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인 8명,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 범위인 16명까지 연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
- 이에 의회사무처는 2022년도에 정책지원관으로 임기제 6급 8명을 공고, 면접, 선발 등 절차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며 신규 채용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 근무에 필요한 기타직 보수 4억 9,00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됨